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안혜미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가쿠인대학교(OGU)	파견기간	2012.9 ~ 2013.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사카 가쿠인대학교(OGU) /오사카 적당한 규모, 불편함 없는 시설. OGU의 일본 학생들은 공부보다 멋 부리기를 좋아함. 형식적인 것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
2012-2학기 수업	기존 일본어 수업(오전)/ 오후 선택수업(교환학생 대상)/ 일반 학부수업 딱히 학부수업을 듣지 않아서 학부수업은 추천과목 없음. 선택 과목중에는 한국의 '박'선생님(パク先生)의 수업이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2013-1학기 수업	딱히 학부수업을 듣지 않아서 추천과목 없음. 선택 수업 중에는 일본문학 (ユキ先生の) 이라는 수업 추천 단편 소설을 읽고 어렵지 않게 적당히 토론 하는 수업 매주 소설을 읽는 게 힘들진 않아도 귀찮았지만 끝나고 보니 꽤 많은 소설들을 읽었다는 사실에 뿌듯해 졌어요. (マスダ先生の) 애니메이션 청해 수업도 듣고 싶었지만 일본문학 시간과 겹쳐서 듣지 못함. 한 학기 내내 애니메이션 하나 밖에 보지 않지만 주위 말로는 꽤 재미 있었다고. 또, 일본 신문을 읽는 수업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사정이 있어 듣지 못했음. 마스다 선생님은 약간 풀어지는 스타일이라 수업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수업에서는 듣지 못하는 일본의 자잘한 얘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 이예요.

프로그램 운영	<p>국제교류본부. 처음에 내가 교환학생을 갈 때도 오사카 가쿠인의 국제교류본부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가서인지, 최대한 역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은 없네요. 하지만 너의 일은 네 스스로 책임져라. 어쩔 수 없다. 여러 학생들이 불편한 환경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분위기는 꽤 있었네요. 그냥 그게 일본 스타일인 듯.</p> <p>생각해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꽤 있었어요. 교류본부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 생각안하고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제가 일본 가기 전에도 들었던 얘긴데, 일본의 9월은 더워요. 그냥 더워요. 여름이에요. (9月も蒸し暑いです) 10월까지 한 달간은 아마 계속 한여름 옷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p> <p>그다음엔 가을 옷 겨울 옷 적당히. 한국 부산날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p>
안전	<p>전 홈스테이를 해서 꽤 안전하다는 지역 쪽에 살아서 그런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서 좀 어두워지고 무섭긴 해요. 여자들만 사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쪽은 좀 더 조심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학교에서 간 저와 다른 한 여자 친구는 둘 다 홈스테이라 안전에 대한 불안은 없었던 것 같네요.</p> <p>지진은 한 번 경험했는데, 꽤 놀랐어요. 새벽이라 자다가 못 느낀 친구들도 있었구요. 일본 지진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가서 지내보니 지진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겁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방사능도 그렇구.</p> <p>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특히 오사카는 지진, 방사능 면에서는 다른 곳보단 안전한 것 같아요.</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홈스테이였어요. 처음에는 남이랑 산다는 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음식도 매운 것도 없고. 그런데 홈스테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점점 익숙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사는 친구들 보다 영양가득한 저녁을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부러워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전 5키로를 켜지요...</p> <p>집에 돌아가면 일본어 쓰지 않는 친구들과 달리, 홈스테이 친구들은 집에서 많은 실용적이고 일본인들이 직접 쓰는 단어들과 말들을 배워오곤 했어요. 누군가 보호자가 있다는 느낌에 든든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도 받았어요.</p> <p>아파트도 장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누구 눈치 보는 일, 적응 하는 일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매운 음식 먹고 싶을 때 맘껏 만들어 먹을 수 있구요. 하지만 직접 매일 물가 계산하면서 음식 만들고 사먹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 지긴 하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홈스테이보다 아파트가 학교에서 가까워요.</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점심은 주로 친구들과 학교 식당을 갔어요. 제일 싸기도 했고, 가까우니까요. 맛은 그냥 그래요. 다 같이 시간이 좀 남을 땐 외부 식당을 가기도 했었구요.</p> <p>저녁은 주로 홈스테이에서 많이 먹었어요. 오카상 요리가 맛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돈 주고 먹는 것 보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다양하고 일본식에 영양도 많아서. 집에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p>
<p>교통</p>	<p>전철 타고 다녔네요. 학교에서 집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3~40분 정도?ㅠ</p> <p>대부분 전철 타고 다녀요.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는데, 남자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여자 친구들은 대부분 전철. 그래도 전철이 편해요. 정기권을 끊으면 꽤 많이 저렴해지니까요.</p> <p>주요도시도 전철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이에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20만원이하/ 피치항공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건강보험 / 매달 2500엔 상해보험 / 1학기 1회 5000엔 정도	OGU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필수 한국에서는 따로 보험 들지 않음.
숙소	매달 50000엔	아파트는 매달 42~45000엔
식비	2~3만엔	식비 / 음주 / 간식포함
교통비	정기권 1개월 3천엔이하/40분거리	가까운 거리는 훨씬 저렴 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먼 거리 중 하나 였어요.
책값	1학기 만엔 이하(기본 수업) / 3권	Class마다 교재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학기 2~3권 정도예요 한 권에 2천~3천엔 정도? 선택수업은 교재가 거의 없구요 학부수업 선택하면 더 늘어나겠죠
합계	한 달에 적게 써도 8만엔	학기 초엔 회식이다 뭐다 돈 더 들기도 하는데 점점 관리가 되더라구요. 게다가 이젠 환율도 내렸으니... 아..2012년엔 너무 비쌌어.. 1400원...ㅜㅜ 지금 가는 사람들은 좋겠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여름 옷.

아! (물리지 않는)모기약 * 강추! 강추! 강추! *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둘다 (이름..모르겠당. 이마트에서 샀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없어서 많이 물렸는데 전 외출 전에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열심히 발라서 그나마 괴롭지않은 여름을 났었던 기억이!

홈스테이 혹은 다른 외국친구들에게 줄 **한국적인 선물**

작은 거라도 좋아요. 공항에서보니 무척 비싸더라고요.

인사동도 좋고 인터넷 가까운 마트도 좋아요

한국적인 책갈피, 한국부채, 한국적 핸드폰 고리. 뭐든 좋아요.

우리에게는 이상하지만 외국친구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과자나 초코파이 이런 것들도 좋아요 (좀 비싼 브라우니도 인기예요)

동전지갑?

딱히 절대 절대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동전 넣는 부분이 없는 지갑을 들고 다니는

남자친구들에게 동전지갑이 달린 지갑이나

동전지갑 하나쯤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은 지폐만큼이나 동전도 많이 쓰거든요. 5000원(500엔)까지는 동전이니까요.

아!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

대부분 학생들이 AU(회사명)의 핸드폰으로 인터넷&전화를 함께 쓰거나

프리페이드(충전식 전화/인터넷 사용불가)를 써요.

전 아이폰을 가져갔어요. 갤럭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을 먼저 컨트리언락을 해지하고 (자동으로 된다고 들은 것 같기도)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인터넷 가능한 유심칩을 사요.

6개월에 만 삼천엔 정도 했어요(그 다음은 그 칩을 충전해서 한달에 2100엔 정도)

전 이렇게 인터넷과 프리페이드를 함께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을 두 개나 들고다닌다는게 불편하지만

가장 저렴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

교환학생을 온 모든 한국친구들이 한 번씩은 틀림없이 '아, 영어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곳에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반은 되요.

영어회화 연습을 하고 간다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폭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면, 두 배로 국제적인 환경을 즐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즐기고 싶다면

영어회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길 바라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외국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짜증나는 일도, 슬럼프도.
너무너무 외로워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좋은 기억뿐이네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순간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분이니까,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들이에요. 또 가고 싶네요.

지금은 일본어를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에요. 일본어 학과는 아니어도, 일본어
에 관련된 일을 찾으려고 하고 있구요. 일본어 능력시험도 다시 준비 중 이에요.
직접 경험하니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점, 다른 점 더 넓게 보이네요.

언젠간 더 많은 외국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즐기는 것
이 꿈이에요.

처음 취업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교환학생 1년은 정말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 돼요.
말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감정들 추억들을 가지게 됐어요.

이번 교환학생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1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에 온 수 많은 나라의 모든 학생들,
이미 외국에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외국에 나갈 모든 사람들도 가지게 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1.</p> 	
<p>1. 한국에 나는 절 대 할 수 없는 과감한 탈색</p>	<p>교환학생 첫 회식(飲み会) ! 다들 두근두근!</p>
	
<p>5월 교환학생 끝. 5월의 오키나와는 여름 날씨예요 오키나와 최고의 여행 (두 명의 계획으로 시작 10명의 여행이 됨)</p>	<p>학기 초. 9월 축제 구경 간 날 (더위에 지친거 보이나요) 시원한 곳 시원한 것을 찾아 다녔지요~ 9월의 옷차림 입니다</p>
	
<p>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 내 생의 첫 라면 만들기!</p>	<p>아사히 맥주공장 견학! 20분 맥주 무료! 취하지 맙시다ㅋㅋ</p>